

정부의 규제 개선과 연구·실증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으로 해외수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 보도 내용 (한국경제, 8.5) >

◆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꿈”

○ 규제에 막혀...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일본행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독일·일본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왔습니다.

○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차도 B2B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레벨 4 자율차를 구매하여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 가능

○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 사업,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 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연구·실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 개선, 인프라, R&D, 해외 수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AI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146)

[오토노머스에이투지, 日 자율주행 시장 진출... 가네마쯔와 MoU 체결]

- 136년 역사 종합상사 가네마쯔 그룹과 파트너십 통해 레벨4 자율주행 기술 현지화 나서
- 고령화·인력부족 등 일본 교통문제 해결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 공동 개발
- 일본 시장 내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및 글로벌 공동 사업화 추진

오토노머스에이투지(대표 한지형, 이하 에이투지)가 4일 일본의 종합상사 가네마쯔 주식회사(이하 가네마쯔)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5일 밝혔다.

가네마쯔는 1889년 설립돼 136년 역사를 가진 일본의 종합상사로,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ICT 솔루션, 전자·디바이스, 식료, 철강·소재·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한다. 최근에는 ‘integration 1.0’이라는 중기 경영 계획에 따라 첨단 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일본 시장 도입 및 실증 추진 ▲현지 인증 및 법규 공동 대응 ▲합작법인(JV) 설립 가능성 검토 등을 진행한다. 가네마쯔는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빌리티 영업 활동 및 일본 현지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에이투지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현지에 접목하고 필요 시 전문 인력을 파견해 실무 협력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는 일본 지역 내 자율주행 확대, 인력 부족 해소, 교통 안정성 강화 등 일본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인구 부족으로 지방 교통 서비스가 약화하고 있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정 조건 아래 완전 무인 운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스마트 시티 구상과 디지털 전환(DX)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실증 사업도 확대하고 있어 이번 협력을 계기로 향후 에이투지의 일본 비즈니스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투지는 지금까지 국내 13개 지역에서 55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약 68만km의 국내 최장 누적 자율주행 운행 거리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K-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무상 개방한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를 적극 활용해 우핸들 차량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선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싱가포르 공공도로 자율주행 면허 M1을 취득하였고, 이어 일본 진출도 본격 궤도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AI 기업 G42 산하의 스페이스42와도 협력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 2024년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1위에 선정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가네마쓰는 오랜 역사만큼 일본 내 자율주행 산업과 사회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에이투지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